2026년 11월의 국내독립운동사적지

동화와 차별교육에 맞서다, 학생독립운동

- 전주 신흥학교 학생운동지와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 활동지-

어느 시대든 학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예비 사회인이자 지식인으로서, 특정한 계급적 관계가 아닌 세대적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하나의 사회집단을 형성한다. 때문에 학생집단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 시대와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한 면에서 학생운동은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율성, 젊음의 패기와 이상주의적 가치 추구, 기성 세대와 사회질서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현실개혁 의지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학생들은 식민지 차별교육의 철폐와 조선인 본위 교육의 실시를 요구하며 식민지 교육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같은 지역 내에서 잇따른 동맹휴학을 일으키거나 지역 단위 또는 타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밀결사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번 11월에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3일)을 맞이하여 전주 신흥학교와 춘천고등보통학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 신흥학교와 항일 독립운동

신흥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였다. 1900년 9월 레이놀즈(W. D. Reynolds) 선교사의 사택에서 시작된 서당 형태의 교육은, 1901년 7월 해리슨(W. B. Harrison) 선교사에 의해 등록 학생 8명의 소년 주간학교로 공식 출범했다. 이후 1908년 제2대 교장 니스벳(J. S. Nisbet, 한국명 유서백) 부임과 함께 '새로운 여명'이자 근대문물의 소개와 진흥을 뜻하는 '신흥(新興, new dawn)'으로 교명이 정해졌다. 이어 후원을 받아 2층 벽돌 교사가 신축되면서 고등과(중등과정)를 갖춘 근대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이 중 강당과 본관 포치(Porch)는 현재까지 남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36년에 강당 겸 체육관 용도로 건립한 장방형 평면의 벽돌조 박공지붕 2층 건물로, 박공면에 3개의 아치형태가 연속된 출입구가 있다. 본관 건물은 1928년 3층 벽돌조로 건립하였으나, 1982년 화재로 소실되고 현재는 가운데 정면 포치만 남아 있다.





화재 후 남은 본관 포치와 강당 입구 정면



1927년 건축 중인 학교 본관

전주 신흥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이었지만, 한국인 교사들과 학생들의 민족의식은 매우 강했다. 신흥학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교가·교훈·교표 등의 학교 상징물과 교사진의 교 육활동에서 나타났다. 교가의 곡조는 만주 지역 독립군이 부르던 독립군가 <용진가>와 같았고, 교훈인 '지·인·용(智·仁·勇)'은 유교의 삼덕(三德)에서 유래한 것으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의 교훈과 같았다. 학생들의 모자와 교기에는 일제의 벚꽃 문양 대신 한국 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교표로 사용되었다.

한국인 교사들은 역사와 성경 시간에 유대 민족의 수난사와 이집트 탈출기(출애굽기)를 강의하며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일깨웠다. 1911년 여름에는 우남 이승만이 학교를 방문하여 "배움에는 노예가 없다"는 주제로 전교생에게 강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본래 선교회는 정교분리를 지향했지만, 민족의식이 강한 교사들이 수업시간과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고 이러한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 역시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켰다.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신흥학교 학생들은 독립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19년 전주 지역의 3·1운동은 기독교계와 천도교계의 연합으로 추진되었다. 그중에서도 기독교 측은 신흥학교와 더불어 같은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운영한 기전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3월 4일 군산 영명학교의 시위 소식을 접한 뒤 전주에서는 3월 13일 전주 장날을 거사일로 정했다. 신흥학교 졸업생 최종삼과 김가전, 그리고 재학생들은 학교 지하실과 교사 사택에서 밤을 새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직접 인쇄하고 제작했다. 3월 13일 정오, 전주 장터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이자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학생들은 장터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군중이 더 합세하여 대규모 만세 운동으로 발전했다.

10년이 흐른 1929년, 11월 3일에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 전주에서는 전주고등보통학교와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가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자 신흥학교 재학생 박문수, 이재영, 함수만, 원용덕 등이 기숙사에서 비밀회합을 갖고 거사를 준비했다. 12월 개교기념일에 맞춰 준비하던 시위가 일제의 조기 방학 조치로 무산되자, 학생들은 1930년 1월 25일 개학 직후 기전여학교 학생들과 연대하여 거리로 나섰다. 신흥학교 학생 80여 명은 "학생만세!", "자주독립만세!"를 외치며 전주시가지 중앙동으로 진출해 투석과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35명이 연행되어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주동자인 함수만은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출옥 직후 예수병원에서 순국했다.

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화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는 신사참배가 단순한 국가 의식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을 파괴하는 우상숭배이자 식민지 이데올로기 강요라고 판단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타협하느니 학교 문을 닫겠다"는 절대 불가 방침을 확립했다. 이에 1937년 9월 6일 일본 경찰은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학생들을 다가공원에 위치한 전주신사로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러나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경례를 끝까지 거부했다. 결국 선교회와 학교 당국은 9월 22일 신흥학교의 자진 폐교를 단행했고, 뒤이어 기전여학교도 문을 닫았다. 신흥학교가 자진 폐교하자 전체 학생 246명 중 197명이 고창고등보통학교로 집단 전학을 갔으며, 수십 명의 학생이 학업을 포기했다.

춘천고등보통학교와 상록회 사건

춘천고등보통학교는 1924년 4월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관립 중등교육기관이다. 현재 도교육위원회 자리에서 가교사(假校舍)로 개교했고 1925년 3월 신축교사를 짓고 현재의 춘천고등학교 위치로 이전했다. 이후 본관, 기숙사, 제2교사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은 1950년 11월 18일 6.25 전쟁 중에 본관과 부속건물이 완전히 소실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춘천고등학교 교정에는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원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1967년 4월 '상록탑'이 건립되어 역사를 전하고 있다.

일제의 전시 수탈과 농촌 피폐화가 심화되던 1937년 3월, 춘천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생인 남궁태, 이찬우, 문세현, 백흥기, 용환각, 조규석 등 6명은 학내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결성했다. 식민지 교육의 모순을 체감한 엘리트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발적 비밀결사였다. 관립학교 특유의 엄격한 식민지 동화 교육과 일어 전용 강요, 조선인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오히려 학생들의 민족적 분노와 자각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상록회 회원들은 "1. 참된 조선인이 되는 것, 2. 단결심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것, 3. 웅변을 배워 활용하는 것"을 목적강령으로 삼고,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서적부를 확대하여 실질적 행동기구인 '독서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열고 민족주의 서적과 사회 소설을 윤독했다. 특히 이광수의 『조선의 현재와 장래』, 심훈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등 농촌계몽소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식민지 민중을 이끌어갈 '지식계급 엘리트'로 인식하고, 농민의 자각과 실력양성이 조선 독립의 필수적 토대라고 믿었다.

나아가 상록회 주요 멤버인 이찬우와 남궁태는 방학을 이용해 자신들의 고향에 농촌 표면 단체를 조직했다. 이찬우는 춘천 오정촌에 '오정경로회'와 야학회를 설립하여 농민들에게 한글과 농업 지식을 가르쳤고, 고향인 춘천군 신북면 천전리에서는 '천전친목회' '천전수양단'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지역의 학생과 농민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려 했다.





현재의 춘천고등학교 전경과 상록탑

남궁태는 홍천군 서면 모곡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무궁화 보급과 민족교육에 평생을 바친 친척 남궁억 선생이 설립한 모곡학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모곡소년단'을 지도했다. 졸업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던 이동산 등과 접촉해 길림에서 상록회를 조직한 상록회 회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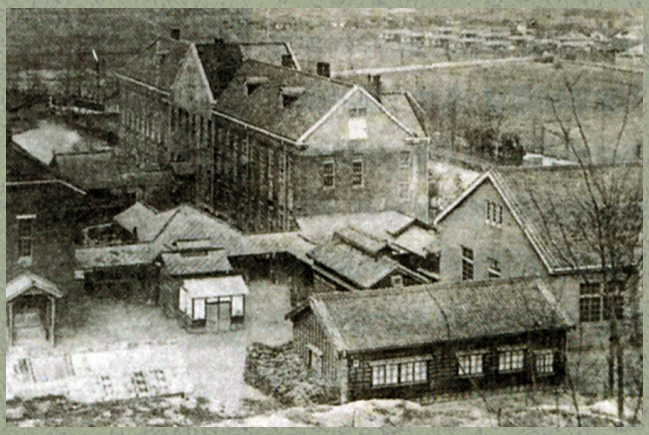
상록회와 산하 독서회는 학교 내에 깊이 뿌리내리며 운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학교의 차별적 조치에 분개하는 일이 발생했다. 1938년 10월 8일,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춘천중학교(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고등보통학교에서 명칭 변경) 학생들 중 일본인 학생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독서회 회원인 5학년 신기철과 이연호, 3학년 이봉채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교생 동맹휴학(맹휴)을 기획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찰의 사전 경계에 포착되었고, 수색 과정에서 신기철의 집에서 민족주의 서적과 독서회 강령,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상록회 원년 멤버와 독서회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총 137명이 검거되는 대규모 '상록회사건'이 발발했다. 검거 선풍으로 춘천 일대는 물론 만주에 있던 졸업생들까지 검거되었다. 관련자들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1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백흥기는 수감 중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일제강점기 전주 신흥학교와 춘천고등보통학교의 항일운동은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시대의 과제와 식민지 차별 교육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계급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학생이라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순수한 형태의 자주독립을 추구하였으며, 독립운동이 탄압으로 위축될 때마다 독립운동의 동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맹휴학이나 학내 비밀결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연대나 야학 및 농촌 계몽운동 등으로 확장되었다. 민족 전반에 독립 의지와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상록회 회원들과 개교 당시의 춘천고등보통학교